

13-88 to 13-92: 통일교회와 우리의 책임

 hdhstudy.com/1963/13-88-to-13-92-%ed%86%b5%ec%9d%bc%ea%b5%90%ed%9a%8c%ec%99%80-%ec%9a%b0%eb%a6%ac

통일교회와 우리의 책임

1963.10.22 (화), 한국 춘천교회

13-88

통일세계와 우리의 책임

[말씀 요지]

좋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나. 나쁜 말을 들어도 좋게 생각하는 사람이다. 선생님은 강원도 사람을 좋은 사람들로 인정해 주고 싶다. 그러니 모든 말씀을 잘 들어 주기를 바란다.

13-88

도의 길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세상에는 좋은 것이 많다. 더러는 그것이 돈이라고 할 것이고, 권세라고 할 것이다. 또 지식이라고도 할 것이다. 그러나 이런 것만으로 진정한 행복을 느낄 수는 없다. 그런 것은 나의 생사 문제와는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이다.

진정 선한 사람이라면 마음과 몸이 선행해야 하고 생활과 생애가 선행해야 한다.

도의 길은 모든 것을 부정하는 데서부터 시작된다. 그러기에 이 도를 좋아하는 사람과 좋아하지 않는 사람으로 나뉘게 되는 것이다. 도가 요구하는 것과 세상이 요구하는 것이 상반되는 것을 알게 된다. 한번 들어와 자리잡으면 나갈 수 없는 것이 도다.

선은 끝이 없고 악은 끝이 있다. 마음의 정체를 알아보면 마음은 무한하다. 또 종교는 육신을 부정한다. 인간의 중심인 마음이 선을 지향하는 것을 보면 인간은 본래 선한 존재였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마음이 지향하는 궁극의 목적지는 하나님이다.

‘선하라’ 하는 것은 하나님을 닮게 하기 위함이며, 이것은 완전한 하나님의 대상이 되라는 뜻이다. 그리하여 하나님과 일체를 이루어 하나님의 사랑을 독차지하라는 것이다.

하나님은 인간을 선하게 하려 하신다. 사람의 혼을 빼라 한다면 정신은 살과 같다. 돌감람나무인 인간을 참감람나무에 접붙이려는 것이다.

인간은 누구나 좋은 친구를 찾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까지 친구로 사귀려 하는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당신의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셨다. 어떻게 해야 그 아들의 친구가 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께서 아들을 보내신 것은 인류를 그에게 접붙임으로 말미암아 혈통과 실체와 심정을 바꾸어 놓으려는 데 있는 것이다.

피와 눈물과 땀으로 주는 것이 최고의 인도주의이다. 예수님은 주기 위하여 왔고 또 아낌없이 주고 가셨다. 예수님은 인도주의에서 천도주의를 세우려 하셨던 것이다.

내가 고생하는 것은 우리 조상이 예수님을 죽인 탓이라고 생각해야 한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해야 한다.

최고의 인도주의와 천도주의를 완결하기 위하여 통일교회가 나온 것이다. 그러므로 이 천도주의의 방향과 때를 알게 되면 이 길을 가지 말래도 가게 되는 것이다. 왜냐하면 출발점과 방향과 때를 알면 앞길을 알 수 있기 때문이다.

통일교회는 1960년부터 시작된 7년노정 중 3년노정을 지나왔다. 외적인 역사에 있어서도 변화가 있었다. 3년에 걸쳐 세 정권이 등장했다.

오늘날의 사회 현실을 보면, 청소년의 비행이 큰 사회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것은 국책으로서도 해결할 수 없다. 요즘 유행하고 있는 트위스트는 손발 궁둥이로 타락했다는 것을 나타낸 춤이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는 책임이 통일교회에 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연두표어를 ‘생애중 최대의 실적(승리)을 남기는 해가 되게 하자’ 아버님의 대신자

(개성완성자)가 되자' 보여 주고 자랑할 수 있는 자(주관자)가 되자'로 했다.

인간은 모든 생활감정을 하나님과 같이해야 한다. 예수님은 3년 만에 영적 구원의 문을 열었지만 우리는 영적 육적으로 사위기대를 복귀해야 한다. 한국의 기독교가 사명을 못 했기 때문에 그 사명이 통일교회로 옮겨진 것이다.

지난 3년 기간은 선생님이 본향을 찾는 기간이었다. 지상천국과 천상천국, 이 본향을 찾기 위해 많은 선열들이 죽어 갔다.

13-90

민족복귀를 위한 4년노정

하나님은 맞고 빼앗아 오신다. 하나를 주고 셋을 빼앗아 온다.

예수님은 3년 동안에 하나님, 이스라엘, 유대교, 선열의 한을 풀어야 했다. 그러기 위해서는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어야 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세계적인 주권을 갖고 오셨기 때문이다.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었다면 하나의 주권과 하나의 백성이 세워졌을 것이다. 그러나 유대 민족의 불신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은 십자가에 매달려 돌아가셨다. 만약 유대 민족이 예수님을 믿고 따랐더라면 그 당시에 로마인들까지 구원받았을 것이다. 그런데 유대교와 이스라엘 민족이 반대하므로 선의 주권을 이룰 수 있는 기회를 잃어버렸다. 예수님 생전에 세계만방을 통일했어야 했는데 그러지 못하고 영적으로만 그 형태를 이루어 나오고 있다.

오늘날의 민주진영은 제2 이스라엘 나라와 같고 기독교는 제2 유대교의 입장에 있다. 따라서 미국의 문화적 지배를 받고 있는 한국은 이스라엘과 같고, 미국은 로마와 같다. 이러한 시대적 환경에서 모든 것을 탕감복귀해야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이 쫓기는 교회(통일교회)가 나와야 한다. 사명을 못 하는 기독교를 밀어제치고 새로운 종교 단체가 나와야 한다.

예수님은 돌아가셨지만 통일교회는 한국을 중심삼고 사탄과 싸워 이김으로써 예수님의 한을 탕감복귀해야 한다. 우리 통일교회는 지난 3년에 걸쳐 승리의 실적을 거두었기 때문에 예수님의 한을 풀게 되었다.

예수님은 천국으로 가지 못했다. 천국은 혼자서 가는 것이 아니라 가정을 이루어서 가야 한다. 부모를 모시고 상대기대를 이루어서 아들딸을 품고 가야 한다. 믿음의 3자녀를 택하여 가정 형태를 갖추어야 한다. 그래서 예수님이 3제자 즉 아담, 노아, 아브라함을 상징하는 3자녀를 찾으려 했으나, 3제자 마저 예수님과 하나되지 못했기 때문에 예수님은 돌아가실 수밖에 없었던 것이다.

예수님과 성신의 한을 풀기 위해 3자녀를 중심한 36가정을 세움으로써 잃어버린 조상을 찾아 세우게 되었다. 이렇게 조상을 세움으로 인해, 그 후손들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아담을 중심하고 가인 아벨형(型)을 완결해야 하므로 72가정을 세웠다. 이 가정을 세움으로 인해 사위기대형의 조상 기반을 완성하게 되었다. 예수님은 120문도를 중심으로 120문도를 세웠으니, 그와 같이 이 120문도를 지상에도 세워야 한다. 그래서 120쌍 축복이 있었다.

지금까지는 사탄이 끌어 갔지만 이제는 하나님이 끌어당기는 때이다. 사탄이 빼앗아갈 때 영계의 협조를 받으면 손해보지만, 빼앗아오는 때에 영계에서 도와주면 도와 줄수록 혜택이 큰 것이다.

우리 삼천만 민족은 세계 기독교인의 입장에서 혜택을 받게 될 것이다. 한민족은 설령 믿지 않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제2 이스라엘권내에 있다. 그러므로 그들의 선조는 제1 이스라엘과 같은 입장에 있기 때문에 영인들이 재림협조할 때가 되었다.

3년노정의 의의는 잃어버린 아들딸을 찾아 모든 것을 해원성사하고 대이동을 하는 데 있다. 야곱이 하란에서 자녀를 찾은 후에는 가나안으로 대이동을 했고, 모세 때도 애굽에서 나왔듯이 통일교회의 축복을 받은 무리는 대이동을 해야 한다. 지금은 한국에서 하지만 나중에는 동반구와 서반구에서 동시에 벌어져야 한다. 이것은 모든 담을 무너뜨리기 위함이다.

3수는 자녀를 찾기 위한 분별 수이며, 4수는 만물을 찾아 세우는 수다. 우리는 이와 같은 1차적인 계획에 성공했다. 이 3년 동안에 승리하여 세계로 진출하는 기반을 닦았다. 이러한 터 위에 제2 이스라엘을 찾아야 한다.

이제 앞으로 남은 4년은 민족복귀를 위해 활동해야 하는 기간이다. 그러므로 있는 힘을 다해 백성과 국토를 복귀하기

위해 활동해야 승리해야 한다. 선생님이 걸어왔던 40년을 여러분들은 4년 동안에 가는 것이다.

앞으로 통일교회라는 간판을 떼는 것도 여러분의 손에 달렸다. 통일교회가 아닌 통일 한국을 만들고 그 기반 위에 통일세계를 이루어야 하겠다. 여러분이 책임 못하면 외국인을 시켜서라도 할 것이다. 그들이 이 3년 노정을 견지 못했고 선생님과 같이 피눈물을 흘리지 못하였다. 선생님과 같은 입장에서 눈물을 흘릴 수 없었다. 그러나 앞으로 눈물 없는 대할 수 없을 것이다.

13-92

한국을 제사장국가로 만들어야 할 우리

선생님이 순회하는 길에는 맨발 벗고 순회해야 한다. 그래서 축복가정을 고생시키는 것이다. 마치 하나님이 성신을 보내어 제2 이스라엘을 창건하기 위해 고생시킨 것 같이.

남자는 예수님 대신, 여자는 성신 대신 고생해야 한다. 성신이 땅에서 수고한 것 같이 여자들은 식구를 키우는 데 지성을 다해야 한다. 남편과 아내는 하나님 앞에 수고한 보고를 하여 뜻이 빨리 이루어 달라고 애원해야 한다. 가정이 모범을 보여 전통을 세워야 한다.

어머니는 열심히 기도해야 한다. 책임 다하지 못하면 대신자를 세우게 된다.

여러분이 선생님을 굶게 해서 안 되는 것 같이 축복받은 식구들을 굶겨서는 안 된다. 축복은 하나님을 대신하여 한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굶는 것을 가슴 아프게 생각해야 한다. 그렇게 하면 삼천만 민족은 우리 뒤를 따라오지 않을 수 없게 된다.

이 민족이 통일교회 이념이 아니면 안 된다는 입장에 서게 해야 한다. 한국을 만방에 호령할 수 있는 제사장 국가로 만들어야 한다. 쓰러지더라도 삼천만 민족을 붙들고 쓰러져야 한다.

7년 대환난은 개인을 복귀하기 위한 7년, 가정을 복귀하기 위한 7년 등 7년씩 일곱 번을 가야 하는 것이다. 그러나 선생님만 믿고 가면 7년만에 끝낼 수 있는 것이다. 제2차 대전 후 7년만에 가려고 했는데 틀어짐으로 말미암아 옥중을 거쳐 나오게 되었다.

야곱이 하란에 가서 고생했던 21년노정이 이제 4년 기간으로 끝날 수 있게 되었다. 이 기간은 한번밖에 없다. 선생님은 여러분이 선생님과 같이 고생하는 탄압기간이 빨리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다. 여러분은 민족을 위하여, 선생님은 세계를 위하여 가야 하는 것이다.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리는 날, 하나님의 날이 결정되는 것이다. 천상천하에 수많은 날이 있었으나 하나님의 날은 없었다. 사탄을 무찌르고 모든 곤경을 타파하여 하나님께 승리의 영광을 돌려 드릴 때 하나님의 창조이념이 완결되고, 모든 자녀들이 영광된 날을 맞이하게 되는 것이다. 이 날이 빨리 오게 해야 한다.

이것을 맹세합시다. 이를 위해 동원되는 것을 영광으로 압시다. 이런 사람이 승리자 중의 승리자요, 효자 중의 효자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친히 효자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사람이 됩시다. *

© 2013 - 2014 hdhstudy.com | [Contact Us](#)

- [RSS](#)